무교회주의, 예배당교회주의, 참교회

(골4:7~18)

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교회주의, 예배당교회주의, 참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무교회주의는 일본의 우치무라 간죠에 의해 주창되어진 신앙운동입니다.
그런데 우치무라 간죠의 제자 중에 한국 사람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분이 김교신, 함석헌 옹 등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치무라 간죠의 무교회주의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소개하게 됩니다.
핵심내용은 교회 안에서 내려오고 있는 어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조직에 근거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의 전통과 조직을 벗어나서 성서에만 근거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언뜻 듣기에 뭐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조직이 살아있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신앙적 운동을 주창하게 된 동기와 지향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교회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성서에 근거됨'에 비추어 말할 때 용납될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서에 근거돼서 생각할 때, 어디 성서에 무교회주의라는 게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결국 이단입니다.
이 무교회주의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무교회주의보다는 이상한 교회주의,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더 문제이기는 하지요.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음속에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까지 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해온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목사님들께서 교인들을 교회에 많이 오게끔 하려고 성수주일 하게끔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서에 근거되고 성서에 뿌리를 둔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고백,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나온 그 신앙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바울도 반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인의 모임인데 교인이 되지 않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바른 교인이 돼야 구원이 있으니까.
참 교인인데도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 교회를 거부한다, 이건 참 교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무교회주의라는 용어를 염두에 두고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배당교회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앞서 나왔던 서신들에서도 자주 보았던 표현 아닙니까?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즉, 가정교회,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나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교회에요.
눔바라고 하는 여자 분이 계시는데, 그 여자 분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게 모였다면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많이 모여야 열댓 명이나 모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가정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였다 이겁니다.
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소위 가정교회라고 하는 형태에 관한 언급을 단순히 그 당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질 수 없었던 열악한 상황 때문이라고만 돌려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많이 모여 있는 이방지역에서는 회당에서 전도를 한 게 사실입니다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음으로서 회당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고 계시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이다, 라고 믿을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주실 수 없었겠어요?
생각을 조금 바꿔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큰 건물에 매이지 않아도, 이렇게 뿔뿔이 가정 가정에서 교회로 모여도 오히려 더 교회의 본질을 실현하기에 유리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매이지 않으면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좀 세상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3요소가 무엇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3요소라는 것은 교회를 다른 모든 단체와 구분해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요소를 말합니다.
동창회도 아니고 골프클럽도 아니고 취미생활 클럽도 아닌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3요소가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에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답게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말씀과 세례와 성찬의 핵심적인 내용과 의미가 모두 십자가사건에 연결돼있습니다.
십자가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고 또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는 3중 형태, 말씀과 세례와 성찬에 있는 것이지 예배당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는 되는 겁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은 적지 않게 자본주의 사회의 성공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사상과 자본주의적 성향에 교회가 물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대한 교회의 매임이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번 예배당 건축이라도 할라치면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다 빼어갑니다.
이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모셔야 된다는 이 요청은 중단이 있으면 안 되는데, 모두가 교회건물에 마음을 다 빼겨버립니다.
예배당이 도움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반면에 부작용이 엄청나요.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보편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에요.
이것이 교리요 이론이 아니에요.
보편교회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근데 예배당에 매임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완전히 개교회로 분리 분산 흩어져버리고 맙니다, 다 분산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예배당 중심으로 개교회화가 추진되면서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조직화되고 화석화돼버립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맙니다.
또한, 예배당 건물이 잘 세워지면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예배당이 하나도 없을 때 박해를 받아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길 때, 그 교인들의 마음속의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그 평강을 가지고 안정감을 찾고 살았으며, 그 평강의 기준은 이 땅에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라는 믿음에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땅에는 한꺼번에 모여서 공공연하게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켰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로마제국 내에 6%밖에 없던 기독교인들에 의해 기독교국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4천만 중에 천만이라고 말하는데도 기독교국가기는커녕 교회가 세상화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의 마음속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 세상 사회 속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왜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느냐?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영역 안에서 다~ 소모돼버리고 맙니다.
여전도회 회장 돼서 바자회 하고 뭐하고 뭐하느라 다 소모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활동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하고 집에 돌아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요청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돈, 돈, 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 장수, 하고 이 세상적인 형통, 형통,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맞서서 이기는 영적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 중심으로 하는 활동영역 안에 들어와 갖고 다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갖다오면 신앙적 부담과 신앙적 요청이 다 해결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섹트 화 돼버렸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교인생활을 하다 보니 섹트 화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 안으로 세상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유행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라도 그런 게 있대요, 세상의 유행가를 틀어주고 밥 먹여주면서 전도하겠다고 해요.
교회 안에 카페를 끌어들입니다.
웃기는 얘기에요.
교회가 세상으로 교회적인 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당의 울타리 안으로 세상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당교회주의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교회로 나가는 길은 뭡니까?
보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바울은 로마에 갇혀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반도를 가로질러서 아드리아 해입니까?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리스 반도를 가로질러 에게 해 너머에 있는 터키 반도의 에베소에서 내륙지방으로 160Km 떨어진 곳이 골로새

인데, 그 골로새에서 10~20Km 떨어진 지점에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도시들이 바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입니다.
근데 로마에 떨어져 있으면서 터키 반도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로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둑을 놓듯이 우측상단에 바둑알을 하나 놓고 좌측하단에 알을 하나 딱 놨는데, 중간을 다 먹어 들어가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제국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편성의 힘이라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갇혀가지고 예배당이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편성을 회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전도할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얘깁니다.
바로 이 사도바울에 의해서 보편성이 유지되는데, 사도바울이라는 인간에 의해서 보편성이 유지된 게 아니라, 그 사도바울이라는 인격이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집중함으로써 보편성이 회복된 겁니다.

우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많이 이해하면 교회가 보편적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그것만을 전할 때,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와 터키 반도 내륙지방에 있는 에베소에서 더 내륙으로 들

어간 이 세 지점의 교회들이 하나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게,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라고 하는 문제, 이 교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아, 교회는 보편적인 하나의 공교회야!'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성을 확보해야 교회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강단이 사도바울의 결심과 같은 결심을 자기의 결심으로 받아들인 목사님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것만을 전하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보편성을 회복하려면 모임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모임, 회(會)라는 말 자체가 모임이잖아요, 이 모임의 성격을 우리는 자꾸 육체의 모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임은 보편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보편성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로마에 있는 사람과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이 함께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공간적으로 벌어져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보편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육체가 모이는 것을 자꾸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육체가 모여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교회의 보편성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마음의 모임이에요, 마음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마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꾸 예배당이라는 땅 위에서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야 모일 수 있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마음의 공간을.

예를 들어, 해와 달이 있어요, 해와 달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60억 인구의 시선이 다 모아질 수가 있는 대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딥니까?
십자가 너머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십자가 너머의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 너머에 마귀가 지배하는 공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까지 이어서 뚫어놓은 제로-랜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제로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로 모여야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십자가 너머에 하늘빛이 들어오는 그 공간, 제로-랜드, 그리스도의 나라, 이곳에 마음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은 전 세계 지구표면에 살고 있는 60억 인구가 다 마음을 보내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의 모임보다 앞서서 찾아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모임이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 있는 것이지, 육체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보편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육체의 모임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육체의 모임에 치중하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계신 로버트 목사님도, 중국에 계시는 챠오챠오 목사님도 전부 교인들의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교인이나 미국, 한국에 있는 교인이나 다 한 공간에 마음이 모아져 있는, 마치 달을 중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봐서 시선이 모아지듯이 그렇게 모일 때 교회가 보편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예배당을 없애자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이상한 얘기지만, 예배당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서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을 교회발전의 5개년 계획처럼 세워가지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배당 건물로부터 자유롭게 교회가 보편성을 회복해나갈 때 교회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무교회주의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교회주의, 예배당이 있어야 교회로 성립할 것 같은 무의식중의 이 생각은 교회 보편성을 잠식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죽여 버리는 결과를 갖게도 됩니다.
주님, 가정교회면 어떻습니까?
아니, 공원교회면 어떻고, 직장의 휴게실교회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보편성을 찾기 위한 올바른 신앙내용,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